

2017 맑스코뮤날레 발표문

꼬문뱅크, 반자본금융의 가능성

Ver 0.7

공동체은행 빈고

2017.05.13



내용

1	서론.....	4
1.1	공동체은행 빈고 (共動體恩行 倉庫, Commune Bank BINGO).....	4
1.2	은행과 이행.....	4
2	은행 접수하기.....	5
2.1	마르크스와 은행.....	5
2.2	금융자본주의-제국주의와 은행.....	7
2.3	레닌이 생각한 은행의 국유화.....	8
2.4	'사멸하는 국가'의 국영은행?.....	10
3	은행 거부하기.....	12
3.1	화폐에 대한 거부 - 대안화폐.....	13
3.2	소유에 대한 거부 - 무소유공동체.....	15
3.3	금융에 대한 거부.....	15
3.4	운동단체와 돈.....	15
4	은행 만들기.....	16
4.1	신용협동조합.....	16
4.1	무이자은행.....	17
4.2	몬드라곤 노동인민금고.....	18
4.3	기타.....	19
5	반자본 금융운동.....	19
5.1	자본주의적 주체를 만들어내는 은행.....	19
5.2	반자본주의자의 자본.....	20
5.3	노동운동, 소비운동, 그리고 금융운동.....	21
5.4	금융운동의 위상와 역할.....	22
5.5	반자본 금융주체.....	23



6	꼬문뱅크	24
6.1	꼬문뱅크의 역할	25
6.2	꼬문	26
6.3	꼬문의 원칙	27
6.4	주체의 전환	28
6.5	꼬문뱅크를 위한 자료	29
7	공동체은행 빈고의 사례	32
7.1	빈고의 반자본 주체	32
7.2	빈고에서 반자본 운영	33
7.3	빈고 현황	34
7.4	빈고의 특징	34
7.5	빈고의 활동	35
7.6	빈고의 사례	36
8	만국의 반자본주의자여, 출자하라	36
9	공동체은행 빈고 선언문	37



1 서론

1.1 공동체은행 빈고 (共動體恩行 貧庫, Commune Bank BINGO)

빈고는 이제 조합원 320명, 공동체 약 15개, 활동 8년차, 유급활동가 0.6명, 출자 2억3천, 자산 약 4억 규모의 작은 조합이다.

공동체은행 빈고는 꼬문뱅크를 지향하는 금융 공동체다. 우리는 동일함에 기반한 공동체(共同體)가 아니라 함께 움직이는 공동체(共動體), 꼬문이다. 우리는 은행(銀行)에 반대하는 은행(恩行)이다. 우리는 화폐(金)를 축적하는 금고(金庫)가 아니라, 우리의 화폐 빈(BIN, 貧)이 움직이는 빈고(貧庫)다. 우리는 자치/공유/환대하는 공동체들의 재정과 금융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다른 질서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소개는 8년의 역사 속에서 정리되어온 형태일 뿐, 우리의 시작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자족적이고, 실용적인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우리가 공동체로서 같이 살기 위해서 각자의 재정 문제와 공동체의 재정원칙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 그래서 각자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이다.

오늘의 발표는 첫째, 우리가 무엇이고,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를 중간 점검하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참가자들과 함께 내부적 외부적인 검토를 해서, 어떤 가능성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해보고자 한다. 셋째, 반자본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들과 반자본 금융운동의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1.2 은행과 이행

우리는 돈이 있을 때도 은행으로 가고, 없을 때도 은행으로 간다. 돈이 남는 사람은 은행에 예금을 하고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은행으로부터 필요한 돈을 대출받을 수도 있다. 은행은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해서, 양쪽 모두를 만족 시키는 편리하고 합리적인 서비스다. 은행은 어떤 위기에든 지켜져야 하는 사회경제 시스템의 흔들림 없는 기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우리는 정반대가 진실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미 짜여진 은행 시스템 속에서 선택의 여지가 종속되어 있다. 우리는 은행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은행 시스템 내부의 닫힌 화폐 흐름이 잠시 우리의 계좌를 거쳐 갈 뿐이다. 우리가 남는 돈을 적절히 보관하고 활용할 다른 방법이 있는가? 우리가 필요한 돈을 빌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가? 우리의 돈을 어떻게 이용하고 어디에 투자하는지 결정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가? 누가 우리의 이자율과 투자처와 신용등급과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가? 우리는 도대체 언제 이 시스템 속에서 살아갈 것을 동의했던 말인가? 다른 대안은 정말 불가능한 건가?

은행은 너무 자명하고 단순해서 여기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가? 한달 벌어 한달 쓰는 우리에게 은행은 그냥 입금하고 출금하는 금고 또는 월급이 스치우는 환상 속의 계좌일 뿐이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반면 은행은 너무 거대하고 전문적이어서 이해하기도 함부로 말하기도 어려운 기관이다. 뭔가 의심적이고, 수상하고, 나쁜 기운이 있어 보이지만 얘기하면 바보되니 조용히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또한 은행은 생산을 하는 곳도 소비를 하는 곳도 아니고 구체적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인다. 보조적이거나 가상적인 영역에 불과한 데 어떤 변화의 가능성이나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건가?

우리도 매번 자문하는 이런 질문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행과 금융이 자본주의 핵심에 있고, 이를 바꿔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본주의 은행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은행의 이행은 어떻게 가능한가? 단순히 분류하자면 방법은 세가지다. 첫째는 은행을 접수하는 것. 둘째는 은행을 거부하는 것. 셋째는 다른 은행을 만드는 것.

첫째는 다름아닌 맑스가 제안했고, 레닌이 실행했던 방법이다. 지금은 불가능할 것 같아서 그런지 잘 검토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기획과 역량이 된다면 하지 않을 이유도 없지 않을까? 어쨌든 혁명 100주년을 맞이하여 이 제안의 내용을 공부하고 오늘의 관점에서 검토해보자.

둘째는 은행이 문제가 되니, 은행을 거부해 버리거나, 은행 이전으로 돌아가거나, 은행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방법이다. 여기에는 세상에 공동체만큼이나 다양한 방식이 있을 것이다. 대안화폐, 무소유공동체 등의 사례를 검토해보자.

셋째는 자본주의 은행이 아닌 대안적인 은행을 만든 것이다. 무이자은행, 신용협동조합운동, 몬드라곤 협동공동체 등을 검토해보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꼬문뱅크라는 모델을 구체화해보자. 빈고의 경험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2 은행 접수하기

2.1 마르크스와 은행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1848년 '공산당선언'에서 모든 자본과 생산 수단을 '지배계급으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트의 수중에 집중' 시키기 위해 선진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10가지의 일반적인 조치를 제시한다. 이중에서 1번부터 4번까지는 수탈자들을 수탈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고, 5번째가 금융에 관한 조치이다. 어떻게 보면 1~4번은 5번에 나오는 '국가 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인다. (6번 부터 10번까지는 각각 교통, 생산, 노동, 지역, 교육에 관한 것이다.) 은행이 국가 자본을 통제하며, 그것도 배타적인 독점권을 가지고 행사한다는 것이다. 부르주아지와 자본가의 금융적 행위는 원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셈이다.

- 1) 토지 소유를 몰수하고, 모든 지대를 국가 경비에 충당하는 것.
- 2) 고율의 누진세,

- 3) 모든 상속권의 폐지.
 - 4) 모든 망명자들과 반역자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
 - 5) 국가 자본과 배타적인 독점권을 가진 국가 은행을 통해 국가의 손 안에 신용을 집중시키는 것.
- 마르크스 엥겔스, <공산당선언>

실제로 최초로 탄생한 노동자 혁명정부, 1871년 파리코뮌이 성립하고 또 실패로 끝났을 때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실패의 원인으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한 부분도 은행과 관련이 된다.

“물론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람들이 프랑스 은행 정문 앞에서 공손하게 서 있으면서 지녔던 신성한 외경심이다. 이것은 또한 중대한 정치적 실수였다. 코뮌의 수중에 있는 은행 - 이것이야말로 1만 명의 인질보다 더 가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하였더라면 프랑스의 부르주아지 전체는 코뮌과의 강화에 관심을 갖도록 베르사유 정부에 압력을 가했을 것이다.”

- 엥겔스, <프랑스 내전 서문>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생각한 ‘국가 은행’이 어떤 형태인가에 대한 서술을 찾기 어렵다. 그렇지만 마르크스는 <자본론 3권>에서 은행자본에 대해 분석하고, 실물자본과 화폐자본의 관계를 상당히 상세하게 분석하고 서술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공부가 부족하고 같이 하고 싶다. 아무튼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고 있다 .

이른바 국립은행들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대규모화폐대부업자들/고리대금업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신용제도는 하나의 거대한 집중이며, 이 기생계급들에게 놀랄만한 권력-산업자본가들을 주기적으로 죽일 뿐만 아니라 가장 위험한 방식으로 현실의 생산에 간섭하는 권력-을 주고 있다. 그런데 이 기생계급들은 생산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며 생산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1844년과 1845년의 법령들을 이러한 도둑들(여기에 금융업자들과 주식투기꾼들이 추가된다)의 권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만약 이 존경할만한 도둑들이 국내와 국외의 생산을 수탈하고 있는 것은 오직 생산과 피착취자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의심한다면, 그 사람은 은행업자의 높은 도덕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설교로부터 확실히 많은 것을 배울 것이다.

“은행은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기관이다.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업자의 경계하고 질책하는 눈초리에 걸리지 않기 위해, 젊은 상인들이 소란스럽고 방탕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얼마나 자주 포기하고 있는가? 은행업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 자기 친구들의 야유와 만류보다 은행업자의 언짢은 얼굴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의심을 받아 자금유통이 제한되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그마한 기만이나 실수에도 얼마나 전전긍긍하고 있는가? 은행업자의 충고가 목사의 충고보다 그에게는 더욱 가치있는 것이 아닌가? 벨(스코틀랜드의 어느 은행이사), <주식은행업의 철학> 1840”

한편 마르크스는 생시몽, 오웬, 푸르동의 신용, 이자, 은행에 대한 사고와 시도들을 비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더 엄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 금융자본주의-제국주의와 은행

“20세기 벽두는 낡은 자본주의에서 새로운 자본주의로, 자본 일반의 지배에서 금융자본의 지배로의 전환점을 이룬다.” - 레닌, <제국주의론>, 1917

21세기가 아니다. 20세기다. 정확히 100년전 레닌은 자본주의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파악했다. <제국주의론>의 상당부분은 주요 국가들의 은행의 종류와 지점의 숫자, 예금액 증가, 산업자본과의 관계 등에 대한 통계적 분석과 실증에 할애되어 있다. 레닌이 파악한 제국주의의 핵심은 금융자본의 지배이다.

은행의 가장 주요한 기능은 지불과정의 중개이다. 이를 통해 은행은 유희화폐자본을 가동자본, 곧 이윤을 창출하는 자본으로 전화시킨다. 즉 은행은 모든 종류의 화폐소득을 모아 자본가 계급의 관리에 맡기는 것이다. 은행업무가 발전하고 소수의 수중으로 집중됨에 따라, 은행은 중개자라는 소극적인 역할로부터 탈피하여, 거의 모든 자본가와 소경영주의 화폐자본 및 한 나라 혹은 여러 나라의 생산수단과 원료자원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강력한 독점체가 된다. 소극적인 중개자로부터 한 줌의 독점체로의 이러한 전화야말로 자본주의가 자본주의적 제국주의로 성장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과정의 하나이다.

- 레닌, <제국주의론>, 1917

레닌이 부르주아 경제학자의 자료까지도 검토하면서 분석한 당시 은행의 상태는 다음과 같다.

생산수단과 원료자원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강력한 독점체.
 산업자본을 통제하는 금융자본
 은행 지점 수와 계좌 수의 급격한 증가
 은행들간의 병합과 제휴를 통한 금융과두제 독과점 체제의 완성
 수천수만의 기업을 단일한 전국적, 전세계적 자본주의 경제로 전화시키는 조밀한 통로망의 발달.
 저축은행과 우체국이 은행과의 경쟁을 시작.
 기업의 경제상태에 대한 보다 완전하고 상세한 정보의 확보.
 은행-산업-정부의 인적 결합을 통한 은행 이사회 운영
 자본수출을 통한 소수 부유한 국가들의 금융 지배
 - 레닌, <제국주의론> 중 발췌 요약

은행은 어떻게 이러한 위치에 올라설 수 있었을까?

자본의 집적과 은행거래액의 증가가 은행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 흠어져 있는 자본가들은 하나의 집단적 자본가로 전화되었다. 소수의 자본가를 위해 당좌계정을 개설할 때 은행은 이를테면 순수히 기술적이고 완전히 보조적인 활동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엄청난 규모로 성장하면, 한 줌의 독점체가 전체 자본주의사회의 모든 상업적 산업적 활동을 그들의 의지에 종속시키게 된다. 왜냐하면 이들 독점체는 은행 거래 관계, 당좌계정, 기타의 금융업무를 통해 - 우선 개별 자본가들의 재정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또 신용을 제한하거나 확장함으로써 혹은 저지하거나 용이하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통제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그들의 소득을 결정하고 그들로부터 자본을 박탈하거나 그들의 자본을 급속하게, 그리고 엄청난 규모로 증가시키도록 허용하

는 등 그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레닌, <제국주의론>, 1917

2.3 레닌이 생각한 은행의 국유화

이러한 분석을 통한 자연스러운 결론으로, 레닌이 혁명의 전야에 생각한 가장 시급한 조치의 첫 번째 것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은행들을 단일 은행으로 통합하여 국가가 그 기능을 통제하거나 은행을 국유화한다.

- 레닌, <임박한 파국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1917

은행을 국유화한다는 레닌의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몇가지 주장으로 정리해서 발췌해 보았다.

2.3.1 은행의 국유화는 중요하고 필수적이다.

은행은 현대 경제 생활의 중심이며, 자본주의 경제 체제 전체의 주요한 신경중추다. "경제 생활 규제"를 이야기하면서 은행 국유화 문제를 피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거나, 아니면 화려한 말과 과장된 공약으로 -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도로 - "보통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다.

은행 기능의 통제와 규제 없이 곡물의 운송이나 물자 전반의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고 규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몇 코페이카는 빼앗아 가려 하면서 수백만 루블에는 눈을 감는 것과 마찬가지다. 요즘 은행은 거래(곡물과 그밖의 다른 모든 것)나 산업과 밀접하고 깊이 있게 결합되어 있어, 은행에 "손을 대지" 않고는 어떠한 가치 있는 일도, "혁명적이고 민주적인" 일도 이룰 수 없다.

- 레닌, <임박한 파국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중 편집 발췌

2.3.2 은행의 국유화는 당장 실행 가능하다.

국가가 은행에 "손을 대는" 것은 아주 어렵고 복잡한 일이 아닐까? 자본가와 그 옹호자들은 보통 이런 말로 속물을 겁주려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은행 국유화는 기술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전혀 어려움이 없다. 오로지 시답잖은 한 줌의 부자들의 더러운 탐욕 때문에 지연되고 있을 뿐이다. 은행 국유화는 사유재산 몰수와 자주 혼동되는데, 이렇게 널리 퍼진 혼란의 책임은 공중을 속이는 데서 이익을 얻는 부르주아 언론에 있다.

은행 국유화는 선포하기만 하면, 임직원들 스스로 이행할 수 있다. 국가에서 특별한 기구, 특별한 예비 단계를 준비할 필요도 없다. 단 한번의 포고로, "일격에" 이행할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가 어음, 주식, 채권 따위를 이용하는 단계로 발전하면서 은행 국유화는 자본주의 자체에 의해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일이 되었다. 필요한 일은 오직 회계를 통일하는 것뿐이다.

- 레닌, <임박한 파국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중 편집 발췌

2.3.3 은행의 국유화는 사유재산 몰수가 아니다.

어떤 "소유자"에게서도 단 1코페이카도 빼앗을 필요가 없는 은행 국유화. 은행 국유화는 사유재산 몰수와 자주 혼동되는데, 이렇게 널리 퍼진 혼란의 책임은 공중을 속이는 데서 이익을 얻는 부르주아 언론에 있다.

은행에 의해 운용되고 은행으로 집중되는 자본의 소유권은, 주식, 채권, 어음, 수취증 등으로 불리는 인쇄 혹은 날인된 증서에 의해 보증된다. 은행이 국유화된다고 해도, 즉 모든 은행이 단일한 국가은행으로 합병된다고 해도 이러한 증서 중의 어느 하나도 무효화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

그 자체로는 소유권과 관련하여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으며, 되풀이하지만 소유자에게서 단 1코페이카도 빼앗지 않는다.

- 레닌, <임박한 파국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중 편집 발췌

2.3.4 은행의 국유화로 얻게 될 것은 엄청나다.

오직 은행을 국유화할 때에만 국가는 어디에서 어떻게, 언제 수백만 루블, 수십억 루블이 흘러가는지 알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설 수 있다. 오직 은행, 자본주의적 유통의 중심이며, 그 축이자 주요 매터니즘인 은행을 통제할 때에만, 모든 경제 생활, 주요 물자의 생산과 분배에 대한 허구가 아닌 실제 통제를 조직하고, "경제 생활 규제"를 조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은행 업무가 단일한 국가 은행에 집중되어 있다는 조건에서 그 업무를 통제하는 것이 가능할 때에만, 쉽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다른 조치들을 시행하여 소득세를 효과적으로 징수하는 일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산과 소득 은폐를 막아준다. 현재 소득세는 아주 많은 부분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은행 국유화로 인민 전체 - 특별히 노동자만이 아니라(사실 노동자들은 은행과 거의 관계가 없다.) 농민 대중과 소기업가까지 - 가 얻는 이익은 엄청나다. 노동이 엄청나게 절약될 것이며, 국가가 기존 은행 직원들을 모두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국유화는 은행 이용의 보편화, 지점의 확대, 은행 업무의 순쉬운 이용 등으로 나아가는 매우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다. 소(小)소유자, 농민이 쉬운 조건으로 신용 거래를 이용하는 일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국가의 입장에서 보자면 처음으로 공개된 상태에서 주요한 화폐 업무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런 다음에는 이 업무들을 통제하고, 그 다음에는 경제 생활을 규제하고, 마지막으로 자본가 신사들에게 "용역"을 대가로 천정부지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일 없이 주요한 국가 거래에 필요한 수백만, 수십억(루블)을 얻게 될 것이다.

- 레닌, <임박한 파국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중 편집 발췌

2.3.5 "작은 차이" - 혁명적이고 민주적인 은행

(독일과 미국 같은 선진국의 경우 은행을 국유화하지 않고) 반동적이고 관료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개혁을 이행한다. 반면 우리는 지금 혁명적 민주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작은 차이"가 아주 중요하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차이를 생각하는 것이 "관례가 아니다." "혁명적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판에 박힌 의례적 표현으로, 관습적인 통칭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본다면, 민주주의자라는 것은 소수가 아니라 인민 다수의 이익을 현실적으로 계산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혁명가는 낡고 해로운 모든 것을 가장 단호하고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독일에는 전국적으로 중요한 아주 큰 은행이 네 개뿐이다. 미국에는 둘 뿐이다. 따라서 그런 은행의

금융 거물이 혁명적인 방식이 아니라 반동적인 방식으로, 민주적인 방식이 아니라 관료적인 방식으로 사적으로 은밀하게 결합하여 정부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이것은 미국과 독일 양쪽에서 일반적인 규칙이다) 은행의 사적 성격을 유지하여, 업무의 비밀을 보존하고, 국가로부터 엄청난 "초과 이윤"을 짜내고, 금융 부정 행위를 일삼고 있다.

미국과 독일 모두 노동자들에게는(또 부분적으로는 농민에게도) 전시 노역 상황을 만들고 은행가와 자본가들에게는 낙원을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경제 생활을 규제한다." 그들의 규제란 노동자들을 기아선상에 몰릴 때까지 "쥐어짜는" 것이며, 반면 자본가들에게는 전쟁 전보다 높은 이익을 보장해주는(은밀하게, 반동적이고 관료적인 방식으로) 것이다.

물론 공화제적이고 제국주의적인 러시아에서도 그런 경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 그들은 반동적이고 관료적인 방식으로 은행의 "불가침성"과 그들이 막대한 이익을 거둘 신성한 권리 역시 옹호하고 있다. 따라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낫겠다. 즉 공화제 러시아에서 그들은 반동적이고 관료적인 방식으로 경제 생활을 규제하고 싶어하지만, "소비에트"의 존재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종종" 알게 된다.

- 레닌, <임박한 파국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중 편집 발췌

2.4 '사멸하는 국가'의 국영은행?

당연히 레닌이 주장한 은행 국유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여러 문제가 있을 것이다. 첫번째는 레닌은 이 글을 쓰고 몇 달 후에 국가 권력을 쟁취하고 은행도 국유화했지만, 우리는 그러기에는 약간 곤란하다는 문제. 두번째는 현실 사회주의 국가의 결말을 대충은 아는 우리로서는, 국가를 접수하고 은행을 국유화하는 것의 결과가 꼭 좋은가, 자본주의 은행에 비해서 더 나았는가 의심된다는 문제. 세번째는 레닌의 말 그대로 자본이 전지구화되었고, 발달한 국가의 금융자본이 다른 국가와 전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작은 국가 하나 접수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 것인가 하는 문제. 네번째는 왜 하필 국가가 소유하는 것인가, 인민은 여전히 가난한 것 아닌가 하는 문제.

현실 사회주의 국가 또는 국가 권력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이라면, 국가 소유와 통제를 의미하는 '국유화'를 '사회화' 정도로 바꿔 읽어도 상관은 없을 것이다. 어쨌든 은행을 바꿔내고 은행을 접수, 소유하는 조직과 주체와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런데 사실 레닌이 생각한 국가는 현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진행된 것 또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국가와는 좀 다르다. 레닌이 생각한 국가는 '프롤레타리아 국가'이며 '사멸하는 국가'이다.

프롤레타리아트에게는 국가가 필요하다 - 모든 기회주의자나 사회배외주의자, 그리고 카우츠키파는 이렇게 되뇌이면서 이것이 마르크스의 이론이라고 단언한다. 그러나 이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덧붙이는 것을 잊고 있다. 첫째, 마르크스에 따르면 프롤레타리아트는 오직 사멸하는 국가, 즉 곧바로 사멸하기 시작하며 반드시 사멸하지 않을 없는 상태의 국가만을 필요로 한다. 둘째, 노동자들은 "국가, 즉 지배계급으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트"를 필요로 한다.

- 레닌, <국가와 혁명>, 1917 중

"엔겔스에 의하면 부르주아국가는 '사멸'되는 것이 아니라 혁명과정에서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해 '폐지'되는 것이다. 혁명 후에 사멸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 국가, 또는 반-국가 semi-state 이다." 레닌의 주장을 분석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에 대해 세 개, 아니 네 개의 구별되는 계기가 설정되어 있음이 드러난다. 먼저 부르주아국가에 대해서는 국가권력의 쟁취와 국가장치의 파괴라는 두 계기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사회주의 혁명 이후 프롤레타리아 국가는 사멸하지만, 그것이 부르주아 국가와 다른 것인 한, 다시 말해 부르주아 국가를 대강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닌 한,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소수가 다수를 억압하는 사회가 아니라 그 반대의 사회이기에 특별한 억압장치가 없어도 되며 만들어지자마자 사멸하기 시작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반-국가'다.

-이진경, <레닌의 정치학에서 외부성의 문제>, <<레닌과 미래의 혁명>> 중

그렇다면 우리가 '국가'를 혁명을 하거나, 선거를 통해 권력을 획득해야 가질 수 있는 무엇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부르주아 국가의 파괴가 어떤 이유에서는 쉽지 않다고 한다면, 또 국가를 쟁취한다고 해도 국가를 대강 바뀌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국가를 접수할 방법이 없다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당장 어떤 국가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를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닐까?

국가는 특수한 권력조직이며 어떤 계급을 억압하기 위한 폭력조직이다. 그렇다면 프롤레타리아트는 어떤 계급을 억압하여야 하는가? 물론 그것은 착취계급, 즉 부르주아지일 뿐이다. 노동자들에게는 오직 착취자들의 반항을 억누르기 위해서만 국가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억압을 지도하고 실현하는 일은 끝까지 혁명적인 유일한 계급인 프롤레타리아트만이, 부르주아지에 대한 투쟁과 부르주아지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투쟁에서 모든 노동자들과 피착취자들을 단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계급인 프롤레타리아트만이 할 수 있다.

- 레닌, <국가와 혁명> 중

프롤레타리아트가 무엇인지, 아직 있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위 인용문은 거꾸로 읽을 필요가 있다. '착취자의 반항을 억누르고', '끝까지 혁명적이고', '모든 노동자들과 피착취자들을 단결시킬 수 있는' 주체가 프롤레타리아트다. '착취계급, 즉 부르주아지'가 '완전히 제거'해 나가면서 '곧바로 사멸하기 시작하며 반드시 사멸하지 않을 수 없는' 조직이 '지배계급으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트' 즉 프롤레타리아트 국가다. 이러한 국가는 사실 운동의 시작부터 존재해야 한다.

공산주의로 이행하기 위해서 공산주의가 이미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순환론이고 현실적으로는 자기모순처럼 보인다. 도달해야 할 곳이 처음부터 있어야 한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이는 논리적으로만 난점일 뿐이다. 이행이란 부재하는 곳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가려는 세계를 지금 현재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그러한 과정이 확장되거나 심화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모든 이행은 도달하고자 하는 어떤 것을 지금 현재 국지적인 한 지점에서부터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이행은 어떤 사회, 어떤 관계 속에 그것에 대해 외부적인 지대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공산주의적 외부, 그것은 사회주의의 시작부터 있어야 한다. 사회주의란 그러한 지대가 자본주의와 달리 쉽게 확장되고 좀 더 강력한 촉발이 되어 번져가는 체제라고 다시 정의해야 한다. 자본주의는 물

론 사회주의에서도 코뮌주의적 외부성을 사유하고 그것을 창안하며 작동시키는 정치적 실천이 없이는 코뮌주의를 향한 어떠한 이행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이행이란 외부성을 원리로 하는 체제다. 이를 시간과 관련된 개념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도래할 것이 현재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도래할 것은 도래하지 않는다. 도래할 것이 존재하는 현재, 그것이 이행이다.

-이진경, <레닌의 정치학에서 외부성의 문제>, <<레닌과 미래의 혁명>> 중

레닌의 원대한 스케일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초라하고 자족적이지 않은가라는 지적도 가능하다. 하지만 레닌도 독점금융자본의 핵심 자본주의 국가를 접수하지 못하고 변방의 후진국만을 접수했을 뿐이지 않은가? 이른바 국가 접수 후에도 부르주아지의 저항에 안팎으로 시달리며 부르주아지의 제거에 실패한 것 아닌가? 국가가 그대로 건재하고 더욱 더 관료화되고 집중되었다면, 사멸하는 프롤레타리아 국가는 시작하지도 못했던 것은 아닐까?

레닌을 부러워할 필요도 비난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어차피 할 수 있는 걸 철저히 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는가? 레닌이 했던 것처럼 은행 국유화를 지금 여기서 실현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낙담할 것도 아니다. 어차피 똑같이 할 것도 아니다. 레닌의 파악한 은행의 역할과 파괴적 힘이 여전히 더 강해졌다면, 은행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는 여전히 혁명과 이행을 실행하는 사람이라면 여전히 핵심 전략으로서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프롤레타리아 국가' 또는 '사멸하는 국가'가 소유하는 국가은행은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인가? '프롤레타리아 은행' 또는 '사멸하는 은행'이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는 혁명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다만 이후 사회주의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고, 몰락도 함께 했을 것으로 생각될 뿐이다. 여러 사회주의 국가들, 또는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이 은행에 어떻게 운영했는지 어떤 차별성과 각각의 역사가 있었을지도 연구가 되면 좋겠다. 현실적으로 어떤 정당이나 국가의 정책에 개입하고자 한다면 어떤 것이 가능할지도 연구되면 좋겠다.

레닌이 금융자본의 독점이 완성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이 100년 전이다. 이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이를 분석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지 않을까? 금융자본의 힘이 레닌의 상상보다도 훨씬 커지고, 은행의 독과점이 더욱 심화되었을 것이다. 제국주의인지 제국인지 세계제국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지구적 금융자본으로 전지구의 인민과 자연이 전례없이 수탈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겠다.

3 은행 거부하기

물론 실제로 있는 은행을 소멸시키는 것은 은행 국유화보다 어렵고, 은행 계좌 하나 없이 살아가는 것은 전기를 안쓰고 살아가는 것만큼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은행을 되도록 활용하지 않거나, 은행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은행이 아니라 주식, 펀드, 보험 등의 부수적인 금융서비스라면 좀 더 단호하게 거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특별히 은

행과 거래할 일이 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 은행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개인적인 실천 뿐 아니라 상당한 이론과 체계를 갖고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진행된 사례들도 많이 있다.

이러한 삶과 실천들을 지식이 부족하고, 개인적이고, 이상한 것으로 취급해 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삶과 실천들을 비정상적으로 사고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자본주의 은행시스템의 관점에서 사고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은행이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그렇지 않은 형태의 모든 교환과 소유가 이상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은행의 안을 찾고자 한다면 그 대안의 원형은 이러한 삶과 실천에서 배우고 이를 참고로 새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아이디어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며, 당장 실천 가능하다. 당장 전세계를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실천하는 사람들과 실천하는 공동체의 적어도 일부는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이들의 세계다. 바뀌지 않는 것은 이들의 세계를 냉소하는 정상적인 은행시스템의 세계를 살아가는 합리적 소비자다.

3.1 화폐에 대한 거부 - 대안화폐

화폐의 본질 무엇이고, 화폐의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이유는 여러가지지만, 화폐를 수상하게 본 사람들이 종종 있었고 제각각의 방법으로 화폐의 대안을 찾으려는 시도가 있었다. 최근에 대안화폐 운동을 단지 공동체운동의 차원을 넘어서 자본주의의 극복을 위한 수단으로서 제시한 것은 가라타니 고진이다.

가라타니 고진은 노동자라는 주체성과 함께 소비자라는 주체성을 나란히 놓고 노동자운동에 준하는 소비자운동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M-C-M이라는 자본의 운동에는, 자본이 만나게 되는 두개의 위기적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노동력 상품을 사는 일과, 노동자에게 생산물을 파는 일입니다. 만약 이중 어느 것에서 실패한다면, 자본은 잉여가치를 획득할 수 없습니다. 바꾸어 말해, 자본일 수가 없습니다. 노동자는 이 두개의 장에서, 자본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가라타니 고진, <NAM에 대하여> 중

사는 일과 파는 일, 혹은 생산과 소비는 화폐경제에서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분리가 노동자와 소비자를 떼어놓고, 마치 기업과 소비자가 경제 주체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노동운동과 소비자운동을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운동은 실은 입장이 바뀐 노동자들의 운동인 것이며, 또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반면에, 노동운동은 소비자운동인 한에서, 그 국지적인 한계를 넘어서 보편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력의 재생산으로서의 소비과정은 육아, 교육, 오락, 지역활동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영역에 관계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가라타니 고진은 소비자의 주체성과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다. 생산-소비 협동조합을 지지하기 위

한 화폐 아닌 화폐로서 대안화폐 시스템에 주목한다.

자본과 국가에 대항하는 장을 유통과정으로 옮기는 경우, 중요해지는 것은 통화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생산-소비협동조합, 즉 어소시에이셔니스트 운동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의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웬은 통화 대신에 노동증표를 만들고, 나아가 프루동은 인민은행을 구상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런 것이 없이는 아무리 생산-소비협동조합이라고 해도, 국가적인 통화나 은행에 근거한 자본제 기업에 패배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맑스는 프루동의 통화나 은행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통화를 따로 만든다는 생각은 맑스주의자들 사이에서 어리석은 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케인즈주의적인 정책, 국가에 의한 재정적인 원조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통화를 가지고 은행을 가지게 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맑스가 오웬이나 프루동의 통화를 비판한 것은 틀림없지만, 결코 그러한 통화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배척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가라타니 고진, <NAM에 대하여> 중

이론적인 논쟁을 깊게 다룰 수는 없지만, 실천적인 차원에서 대안화폐 또는 고진의 주장의 기여는 분명한 것 같다. 첫번째는 자본에 대항하는 방법으로서 소비라는 영역과 노동자로서의 소비자라는 주체의 가능성과 보편적 연대의 근거를 제시한 점. 두번째는 오래된 맑스주의와 아나키즘의 간격을 좁히고,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의 연합이라는 실현가능한 전환의 가능성을 보여준 점. 세번째는 역시 대안화폐를 통한 비자본적인 질서의 가능성에 대한 탐구.

물론 난점들도 지적할 수 있다. 첫번째 노동자로서의 소비자라는 주체성과 그 실천방식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 기존의 소비자운동과의 차별성을 갖는 노동자로서의 소비자운동이 구체화된 사례가 있나? 소비자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사는 것은 좋은데, 생산자협동조합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가 쉽지 않다..

두번째, 대안화폐는 LETS 또는 시민통화Q, 시민통화L 등 여러가지 모델이 시도되고는 있지만 현실에서 통용되는 데는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다. 공동체 내의 화폐는 확장성이 부족해서 통용되지 않고, 화폐로서 거래되는 화폐는 공동체성이 부족한 딜레마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고진의 큰 계획에도 불구하고 여러 형태의 대안화폐가 보조화폐가 아닌 말그대로의 대안이 되고 있지는 못하다.

대안화폐의 또 한가지의 난점은 거의 모든 대안화폐가 거래수단으로서의 화폐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소비자로서 대안화폐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전부이며, 화폐가 축적이 된다거나, 생산에 투자된다거나, 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의 예는 거의 없다. 대안화폐가 단지 소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생산과 연계되는 것, 생산-소비 협동조합의 화폐가 되기 위해서라면, 대안화폐를 유통하고 소비하는 대안은행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3.2 소유에 대한 거부 - 무소유공동체

보다 근본적으로는 소유를 거부해서 원천적으로 개인의 소유를 없애는 공동체가 있다. 종교공동체나 신념공동체들의 일부. 이상적이고 도덕적인 강한 공동체.

그러나 무소유공동체도 자본주의 사회 속에 있고, 완전한 자급을 이루지 않는 이상 물자를 확보하기 위한 화폐를 소유하고 관리하는 전략을 필요로 한다.

결국 엄밀히 말하면 무소유라기보다는 공동체소유라고 해야 할 것. 또는 전구성원의 소유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구성원들에게는 점유는 자유롭지만, 소유와 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구성원들의 높은 신념과 도덕성이 필요하고, 공정한 점유를 위한 강한 규칙이 필요하고, 공동체의 민주주의와 통합성이 강하지 않으면 체계가 흔들리거나, 권위와 권력을 가진 소수의 독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자발적으로 개인의 소유를 공동의 소유로 전환시키는 선택을 하는 개인은 비범한 주체임은 틀림 없다. 그런만큼 그 개인은 권위를 갖게되고 이는 쉽게 권력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공동체에 속하는 것만으로 공동체소유의 구성원이 될 수 있고, 자유로운 점유가 가능하다면, 누가 공동체 구성원이 될 것인가가 중요해짐. 가입도 탈퇴도 쉽지 않다. 폐쇄적으로 가기 쉬운 요인이 된다. 구성원이 탈퇴 또는 추방되는 경우의 문제. 공동체의 해체 또는 분열이 될 때의 문제.

어찌보면 많은 가족들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일 수도 있다. 가족 간의 돈 문제? 또는 사회주의국가의 전인민의 소유?

3.3 금융에 대한 거부

- 주식투자 거부
좌파가 주식투자를 해도 좋은가? 라는 질문이 화두가 된 적이 있다. 좌파의 윤리, 좌파의 이론과 현실의 차이를 지적하는 질문이다. 중요한 윤리적 실천이라는 데 공감한다. 그런데, 그렇다면 좌파는 반자본주의자는 자기의 자본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은행에 넣어두면 좋은가? 장롱에 넣어두면 좋은가? 누군가에게 쥐버리면 좋은가? 아예 갖지 않아야 하는가?
- 대출에 대한 거부 : 부채탕감운동, 주빌리은행
- 상속에 대한 거부 :

3.4 운동단체와 돈

- 회비 후원금 : 가장 일반적인 방식. 세금 또는 선물과 같은 방식.
- 회원 차입 : 협동조합 등에서 회원들에게 이자를 약속하고 돈을 빌리는 방식



- 목적 투자 : 사안에 따라서 반환을 기대하지 않고 투자를 모금.
- 무이자채권 : 사무실건물, 주택 등을 매입하거나 전세임대할 때 목돈을 마련하는 방식
- 후원주점, 후원장터, 소액모금, 크라우드펀딩
- 다 좋지만 금융적 통합의 필요성.
- 단체 간 불균형의 문제
- 정보의 문제
- 통합과 효율성의 문제
- 중복된 노동
- 개인의 주체성 문제.

4 은행 만들기

4.1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운동의 역사는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고, 배우고 참고해야 할 점이 많이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고리대로부터 벗어나고, 저축을 통해서 가난을 극복하는데 기여를 한 것은 신협운동가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에 와서는 신협이 시중은행과의 차별성을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문제였을까?

첫째는 국가와의 타협. 국가로부터 예금의 안정성을 보장받는 대신 국가의 통제를 받아들인 점. 둘째는 조합 민주주의의 문제. 조합의 규모가 커지고, 업무가 전문화되는 과정에서 조합의 민주주의가 유명무실해진 것의 문제. 셋째는 조합원들의 예금자 중심으로 성격변화. 시중은행에 비해 높은 이자율, 세금혜택 등은 이러한 경향을 강화했다.

사실상 세번째 요인이 첫째와 둘째를 강화한 것이 아닐까? 시중은행의 예금자와 동일한 목적으로, 혹은 더 치밀한 계산으로 신협과 거래하는 주체가 조합원이라면 신협이 시중은행과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신협의 민주주의가 잘 이뤄지고 조합원 욕구를 잘 반영한다면, 신협은 은행과 유사하게 또는 은행보다 더 은행다워져야 했던 것은 아닐까?

가난한 노동자는 당연히 저축할 돈이 없다. 그러나 저축하기 시작해서 돈이 생기기 시작하면 점차 자본의 담지자, 자본가로서 사고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가난한 노동자들의 공동체인 신용협동조합은 역설적으로 노동자들이 가난을 벗어나면서 부터는 자본가들의 공동체가 되어가고 결국은 자본가들의 은행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

신용협동조합의 목표는 물론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전략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나쁜 빛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저축을 통해서 자본을 만드는 것. 결국 신용협동조합의 목표는 조합원들이 자본주의적 합리성을 갖추게 하는 것인가? 이자 수입을

위해서 저축을 하는 조합원들을 만들고, 적절하게 투자할 줄 알고 대출을 받는 조합원을 만드는 것인가?

화폐와 자본을 중심으로 사람의 삶을 생각한다면, 화폐와 자본이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것이 당연히 나은 삶이지 않은가? 사람의 발전 방향 역시 당연히 화폐와 자본을 더 많이 갖는 것으로 설정 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신용협동조합은 어떤 조합원을 만들 것인가? 조합원은 애초에 왜 조합을 만들고자 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화폐의 양으로 얘기될 수밖에 없다면 답은 정해져있다. 그럼 우리는 화폐의 질, 삶의 질을 얘기할 수 있을까? 다른 합리성, 다른 주체성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4.1 무이자은행

이자 없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 한 사람의 채권자와 한 사람의 채무자만을 보면 이자 없는 세상을 만드는 건 채권자가 마음먹기에 따라 아주 쉬울 수도 있다. 채권자가 이자를 포기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두 사람이 모든 것이 이자로 계산되는 세상에 살고 있고, 이러한 환경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상황은 간단치가 않다.

A가 무이자를 실천하며 B에게 100만원을 빌려주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그런데 A와 B가 살아가는 세상은 10%의 이자가 일반적이라고 하자. 즉 보통 사람 C가 D에게 100만원을 빌려주면, D는 C에게 10만원의 이자를 내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다. .

첫째. A가 B에게 10만원을 선물한 것과 같은 효과다.

둘째. A는 왜 D가 아니라 B에게 빌려주었는가?

셋째. B는 왜 C가 아니라 A에게 빌렸는가?

넷째. B가 A와 C에게 동시에 돈을 빌렸다고 하자. B는 어느쪽부터 갚아야 하나?

결국 무이자은행은 표현은 은행이지만, 실제로는 금융이라기 보다는 선물의 체계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일반적인 구성 원리라기 보다는 공동체 내부의 선물 순환의 체계가 아닐까?

무이자은행은 실질적으로는 잉여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운영비도 적립금도 있을 수 없다. 조합비 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공급의 부족과 수요의 과다. 누구에게 빌려줄 것인가가 중요해진다.

A는 무이자 또는 반자본이라 할 수 있는 실천을 한 것이지만, A의 선택이 B든 D는 무관하게 가능한 실천이 아니라면, 반자본이라기 보다는 선물이다. 선물은 공짜가 아니다.

B는 A의 선물을 받고, 무이자의 관점에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염치가 없거나, 현실

을 무시한 것이거나, B와의 차별성을 잊고 있는 것. 반대로 A의 선택에 고맙다고 생각하면, 답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는 이자가 어떤 형태로든 변형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B는 이자없는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실전은 내야 할 이자를 자신이 보유하는 것뿐인가?

심지어 세상은 이어지기 때문에, B는 빌린 돈을 다시 E에게 빌려주는 것이 가능하다. 혹은 이미 E에게 이자를 주고 빌린 돈이 있었기 때문에, A에게 돈을 빌린 것일 수도 있다.

물론 이는 A와 B의 '이자없는 세상'생각에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A와 B의 존재, 이자가 온존하는 세계에 대한 이행전략이 부재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채무자의 입장이 지나치게 수동적이고, 시혜의 대상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A와 B의 관계는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무이자가 아니라 저이자 시스템도 마찬가지 문제. 사실상 무이자은행은 운영이 불가하기 때문에 저이자, 회비, 수수료, 저축포인트 등의 형태로 운영비를 보충하지 않으면 안된다. JAK 은행과 같은 독특한 시스템은 재미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2 몬드라곤 노동인민금고

노동인민금고는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의 중심이 되는 신용협동조합이다. 몬드라곤이 협동조합 원칙을 지키면서도 끊임없는 자기 혁신을 통해 규모를 확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금고의 자금 및 기술 지원과 서비스 제공이 핵심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신용협동조합들에 비해서 노동인민금고는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

노동인민금고는 몬드라곤 복합체에서 협동조합들을 거의 국가가 강제하는 것과 유사할 정도로 강력한 규정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몇가지 사례를 보자.

몬드라곤 소속 협동조합은 통상 잉여금의 45%를 공동자본으로 적립하고, 45%는 조합원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10%는 지역사회공헌기금으로 사용.

배당금은 조합원들에게 현금으로 배당되지 않고 퇴직할 때까지 조합원들의 내부자본계좌에 적립. 잉여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내부자본계좌에 대규모의 자본이 축적됨.

금고는 연합협정을 통해 개별 협동조합에 대한 강력한 제도적 통제력 행사.

금고에 분담금을 내고 모든 금융거래를 금고와 해야 한다.

금고는 정기적으로 회계감사와 사업감사를 실시한다.

고용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되며, 원칙적으로 견습 기간을 거친 노동자는 조합원이 되어야 한다. 비조합원은 전체 조합원의 10%를 넘어서는 안 된다.

1인1표 원칙에 근거하여 이사회, 조합평의회, 경영평의회 등 민주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금고가 잉여금의 배분 기준을 제시한다. 배당금은 자본계좌에 예치되며, 이에 대한 이자는 시중 이자율로 반년마다 계좌로 입금된다. 이자는 액수에 관계없이 6%만 현금으로 지급한다.

생산 증대를 통해 시장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면 자본 부족을 이유로 신규 조합원의 가입을 제한하지 못한다. 조합원들이 추가 출자하거나 금고 대출을 통해 고용을 증대시킬 의무가 있다.

원칙적으로 자체 재원을 통해 투자 자금을 충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기자본이 차입자본의 두 배 이상이어야 한다.

최고 임금과 미숙력 노동 임금 간의 최대 차이는 3:1을 유지해야 한다. 임금의 범위는 금고에서 통용되는 임금의 90~110%를 유지해야 한다.

금고는 초기부터 개발은행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금고의 자금이 대출 요구를 초과함에 따라 잠재적 협동조합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기업국을 만들었다.

기업국은 이 협동조합의 경영이 손익분기점에 이를 때까지 전문가를 해당 협동조합에 계속해서 파견한다. 협동조합은 매달 경영과 재무 상황을 기업국에 보고하고, 기업국은 모든 데이터를 확인하고 저장해서 수시로 경영과 재무 상황 등을 점검한다.

안진구, <몬드라곤 노동인민금고 자료>

노동인민금고는 거의 국가처럼 운영되면서 실제로도 몬드라곤 복합체와 그 지역에 독특한 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했다.

4.3 기타

- 프루동 교환은행 / 인민은행
- 소액대출운동
- 계
- 사회적금융
- 기본소득
- 노동조합 금융사업
- 보험

5 반자본 금융운동

5.1 자본주의적 주체를 만들어내는 은행

금융은 생산에서 보조적이고 외부적인 요인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된다. 기업가에게 은행은 자본 조달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뿐이었다. 하지만 어떤 단계에서 관계는 역전되고 은행은 자본주의 발전에 핵심적인 주역이 된다.

첫째, 은행은 화폐를 자본으로 전화시킨다. 화폐는 단지 화폐에 불과했지만, 은행을 통해서 자본이 된다. 자본가의 화폐만이 아니라 은행을 통과하는 모든 화폐가 자본으로 기능한다. 둘째, 은행을 통해서 개별 자본이 통합되면서 자본의 담지자인 개별 자본가 계급도 단결하게 된다. 개별 산업자본가들은 상이한 이해관계를 갖고 경쟁과 갈등 관계에 있을 수 있지만, 금융자본으로서의 단일한 이해를 갖게 된다. 셋째, 은행은 단지 기술적인 역할을 했을 뿐이지만, 이를 통해 개별기업

과 개별자본가에 대한 정보를 집적하게 되고 이는 권력의 기반이 된다. 넷째 은행이 기업의 신용을 평가하고 신용의 규모를 조절하게 되면서 기업의 활동을 상당부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다섯째 비교적 독립적, 지역적인 경제단위들을 단일한 중심의 전세계적 자본주의 경제로 종속시키고 전화시킨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은행은 지주회사의 형태로 주식의 일부를 보유하거나 신용체계를 이용해서 기업과 은행을 통폐합하는 데 성공한다.

이것은 질적인 변화이다. 은행은 단지 자본을 모으고, 자본주의 기업을 통합하고, 자본가 계급을 단결하게 하는 차원을 넘어 있다. 다소 무리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은행은 자본을 만들고, 자본주의 기업을 만들고, 자본가 계급을 만들어내는 적극적인 시스템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페미니스트 경제학자 김슨-그레이엄은 자본주의의 외부는 없고, 현대의 모든 기업들을 자본주의 기업으로 보는 시각에 반대한다. 현대의 기업들을 세분화해보면 상당한 다양성이 존재하고 대안 자본주의(녹색자본주의 기업, 사회적책임 기업, 국영기업 등), 비자본주의적 기업들(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자영기업, 노예기업, 봉건영지 등)이 있음을 상기시킨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모든 기업들이 오로지 자본주의적 논리만으로 구성되지는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자본주의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들 다양한 기업들을 동질화 하고 구속하고 자본주의적으로 통합하는 요인이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레닌의 분석은 거대화된 은행이 바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자본이 전지구를 지배하는 제국주의. 전세계의 모든 화폐를 끊임없이 자본으로 전화시키는 전지구적 은행시스템이 가동되는 한, 자본이 아닌 화폐는 없으며, 자본주의의 외부 또한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과장이라고만 볼 수는 없지 않을까?

5.2 반자본주의자의 자본

레닌의 시대의 노동자는 은행과 무관했다. 노동자가 저축을 할 수 있을 리가 없고, 대출을 받는 경우는 만무 했을 것이다. 은행은 자본가와 기업가들의 연합체였을 뿐이었다. 자본을 가진 자본가와 그렇지 않은 노동자. 반자본주의의 전선은 명확하고 전략도 분명하다. 레닌이 은행을 국유화했을 때 노동자들의 반대는 전무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어떨까? 혁명정부가 은행의 접수를 선언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적어도 몇가지 지점에서 상황은 변화했다. 첫째, 노동자가 저축을 하고 상당한 화폐를 필요로 하는 주택과 자동차 등의 소유자가 되었다. 둘째, 금융시스템이 보편화되면서 노동자가 가진 화폐가 단지 예금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즉각 자본에 기여하게 되었다. 셋째, 노동자가 예금자, 대출자, 투자자, 기업가, 자본가 등의 주체성을 동시에 갖는 복합적인 상황이 되었다. 넷째, 노동자 각자가 금융 전략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노동자 사이의 차이가 크게 증가한다. 다섯째, 노동자 전체의 예금 및 부채의 규모는 전체 자본시장에서도 상당한 지분을 가질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

결론적으로 노동자가 자본을 소유하게 되었다. 물론 약간의 자본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노동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노동자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자본은 그 소유자를 자본의 담지자, 즉 자본가로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 힘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유물론적이기 때문에 단지 자본주의에 이성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반자본주의자가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기뻐할 수 있을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반자본주의자가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을까? 삼성전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삼성에 노조가 생기는 것을 찬성할 수 있을까? 현대자동차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한미FTA를 거부할 수 있을까? 중국 펀드를 소유한 사람이 중국 노동자의 처우를 걱정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모든 금융 거래의 시작과 끝은 은행이다.

반자본주의자들조차 어쩔 수 없이 갖게 된 자본. 반자본주의자들조차도 합리적인 자본가로 행동하게 만들어버리는 자본의 힘. 반자본주의자들 간의 단결을 저해하는 자본의 힘. 반자본주의자들은 그들의 원죄에서 어떻게 구원될 수 있을 것인가?

5.3 노동운동, 소비운동, 그리고 금융운동

우리는 노동을 통해 수입을 얻고, 소비를 통해 지출을 한다. 반대로 자본은 노동자를 고용해서 착취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얻는다. 우리는 수입이라는 계기에서 노동자가 되고, 지출이라는 계기에서 소비자가 된다.

우리가 노동을 하고, 자본으로부터 최대한의 임금소득을 쟁취하는 것은 자본의 권력과 수익에 반대하는 반자본운동이다. 또한 우리가 소비를 최소화해서, 자본이 우리의 돈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 또한 반자본운동이다.

그런데, 우리가 최대한의 소득을 얻고, 최소한의 소비를 하고 남은 차액은 어떻게 되는가? 저축을 한다. 그런데 어디에 어떻게? 은행, 펀드, 보험, 부동산? 되도록 안정적이고 되도록 높은 수익을 주는 곳으로? 여기서부터는 현명한 자본가의 선택이다. 대안이 없다면, 이렇게 우리의 돈은 곧 자본이 된다. 이 자본은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여기서 기로에 선다. 이 기로에서 현명한 자본가와 반자본주의자의 차이는 무엇일까?

우리는 우리가 주목해보고자 하는 것은 수입과 지출의 차이가 움직이는 금융이라는 계기이다. 즉 은행과 관련된 부분, 예금을 하는 예금자와 대출을 받는 대출자를 비롯한 각종 금융적 계기에서의 주체, 금융자의 입장이다. (여기에 몇가지 계기를 더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선물을 주고받는 계기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가족 또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 다른 하나는 세금을 내고 지원을 받는 계기에서 국민 또는 시민이 된다.)

노동자로서 우리는 착취당하지만, 노동자로서 단결함으로써 반자본실천을 할 수 있다. 노동조합운동, 임금협상, 총파업, 사보타지, 노동거부, 노동자자주경영, 생산자협동조합 등의 노동운동의 실천

이 오랜 역사동안 강력하게 존재했다. 소비자로서 우리는 매번 자본가의 이익을 승인하지만, 소비자로서 단결해서 반자본실천을 할 수 있다. 공정거래운동, 불매운동, 환경운동, 윤리적소비, 이념적소비, 공정무역, 소비자협동조합 등의 소비운동을 실천함으로써 자본의 횡포에 저항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금융자로서 단결해서 금융운동이라는 반자본실천을 할 수 있을까? 금융이라는 계기에서 반자본적 주체가 되고, 반자본주의 금융운동을 실행할 수 있을까? 반자본주의자의 자본을 거꾸로 작동시켜서 자본에 대항하는 자본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5.4 금융운동의 위상과 역할

물론 금융이라는 계기는 노동과 소비만큼 중요한 계기는 아닐 것이다. 우리는 하루의 1/3을 노동에, 1/3을 노동을 위한 휴식에, 1/3을 소비와 여가에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금융은 대부분 금융소비라는 소비의 작은 영역일 수도 있다.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노동과 소비의 문제를 건너뛰고 금융적 수단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예를들어 빈곤의 문제는 노동과 복지의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 일차적이지, 소액대출은 이차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는 소득과 지출이 아니라 자본과 부채로 사람의 삶이 결정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누구도 자기 돈을 모아서 서울에 집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는다. 월급을 모으고 아껴서 부자가 된다는 기대를 누구도 하지 않는다. 이미 있는 자본을 어떻게 현명하게 관리하고 투자해서 살 것인가? 부모의 자본을 어떻게 상속받을 것인가? 부모가 남긴 자본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어떤 보험을 들어서 위험과 불안정성을 해소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라면 그나마 다행이다. 사실 우리에게 더 가까운 질문은, 저축을 못하고 살아도 괜찮을까? 큰 돈 나갈 일이 생기면 어쩌나? 어디서 돈을 빌릴 것인가? 있는 부채를 어떻게 상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다.

한편 금융은 하루하루의 삶보다도 미래의 계획과 관련된 계기라고 생각된다. (물론 계획의 필요성이 없는 사람도 있고, 계획하지 않는 삶도 나름의 방식일 수 있다.) 예금과 적금을 계획하든, 대출을 계획하든, 보험과 부동산을 계약하든 우리는 그 계획과 계약의 영향 속에서 살아간다.

무엇인가를 큰 돈이 필요한 것을 하고 싶어서 적금을 가입한다. 그 욕망과 이자수입에 대한 기대가 적금 일정을 성실하게, 이를 위해 더 많은 노동과 더 적은 소비를 감내하게 한다. 당장 저축 이상의 돈을 사용해야 할 필요 때문에 대출을 받는다. 그리고 그 대출로 정해진 계획에 따라 상환을 하고, 이를 위해 역시 노동과 절약을 감내한다. 혼자 감내야 하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불안이 보험에 들게 하고, 매몰비용이 아까워서 지속되게 된다.

결국 금융적인 원칙과 계획을 결정한다는 것은 삶의 계획과 방식을 대단히 구체적이고 고정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그 결정은 상당기간의 삶의 양식을 결정한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어떤 삶을 계획한다면 금융계획으로 구체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삶이 반자본주의적인 삶이라면, 이를 위한 반자본 금융운동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돈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개입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지배하게 되면 될수록 이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진다. 노동자로서 정당하게 수입을 얻고, 소비자로서 올바르게 지출을 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현대 금융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개인의 수입과 지출 외에 자산과 부채가 갖는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한 사람의 부는 노동시장에 나가기도 전에 자산과 부채의 차이로 대부분이 결정된다. 집을 사는 것은 더는 소비의 문제가 아니라, 자산을 상속받는 문제, 대출이라는 리스크를 안고 레버리지를 노리는 투자와 자산운용 전략의 문제다. 우리는 오늘 하루 소비를 위해 노동하는 것만큼이나, 과거의 부채 때문에 노동하고, 미래의 자산을 위해 노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노동자로서 단결하고, 소비자로서 연합하는 만큼, 금융의 영역에서도 단결하고 연합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경험과 이론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 노동자는 어떻게 저축해야 하나? 실업자는 어떻게 생활해야 하나? 소비자는 금융상품을 어떻게 해야 하나? 노동자는 어디에 투자해야 하나? 소비자는 어떻게 집을 구해야 하는가? 우리는 노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우리는 어떻게 미래의 위험에 대비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그들과 다르게 돈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노동자와 소비자로서 그들과 투쟁해서 돈에 여유가 생겼을 때, 우리가 그들과 같은 부자가 되고 말 것인가?

5.5 반자본 금융주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삶의 괴로움은 삶을 계획할 수 없다는 점이다. 노동자가 잉여를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삶은 변화할 여지가 없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강력한 노동운동의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소비의 주체가 된다는 계기도, 금융이라는 계기도 불필요할 것이다.

노동자가 노동하고 절약하고 저축하는 삶이 모범이었던 시대가 있었다. 모두 비슷하게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노동하고 알뜰하게 살림했다. 장기적인 적금을 계획하고 주택 청약을 해서 내 집을 마련했다. 자녀를 교육하고 보험을 붓는 것으로 노후를 대비하고, 모은 자산을 상속하는 것이 삶의 계획이었다.

그러나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을 저축보다 부동산을 사고, 주식 투자를 하는 등 재테크를 시작했다. 최대한 빨리 종자돈을 만들고, 자본으로 현명하게 투자하라. 필요하다면 부채를 끌어서 집부터 사라. 구매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다음 집을 사라.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더 효율적으로 주식투자 하라. 1인 기업처럼 사고하고 계획하라. 그렇게 빠르게 자산을 늘리고, 남들이 자기를 위해 돈을 벌어주는 시스템을 고안하라!

위쪽은 보수적이고 재테크 방식이고, 아래쪽은 리버럴한 재테크 방식이다. 위쪽은 저축 중심의 자본논리고, 아래쪽은 자산 중심의 자본논리다. 이게 우리의 삶의 전략이고 계획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계획은 사실 자본의 계획이다.

우리가 적금과 보험을 계약하는 순간 자본은 안정적인 자금 공급처를 얻고, 동시에 성실하게 노동할 노동자를 얻는다. 우리가 대출을 받아 집을 매입하는 순간 자본은 안정적인 담보와 수익과 거래처와 투자처를 얻는다.

소득이 늘어나야 한다. 지출을 줄여야 한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차이는 각자가 가진 자본과 부채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차이는 각자가 가진 자본과 부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이다.

자본주의 은행시스템은 우리의 욕망과 삶의 양식마저도 바꾸어 놓기 시작했다. 우리는 어느새 저들의 욕망과 저들의 규칙을 따르게 되었다. 무심코 은행에서 권유한 펀드 상품에 가입하면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돈이 안정성과 수익성을 갖고 저절로 불어나길 바라게 되었다. 돈이 어떻게 쓰이고, 누구를 위해 쓰이건 간에 중요한 것은 나에게 돌아오는 이자 또는 투자 수익률뿐이다. 은행의 낮은 이율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 돈을 빌려 부동산을 매입하고, 투자를 하고, 사업을 벌이면서 레버리지라는 이름의 더 높은 수익률을 얻고자 한다. 그렇게 우리는 여전히 수탈당하고 착취당하는 노동자와 소비자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예금자, 채권자, 투자자, 채무자, 자산가, 사업가가 되어 간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잃어버리고 그들 중의 하나로, 은행시스템의 지지자 또는 공범자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변해버린 우리의 욕망과 신체는 어떠한 다른 삶도 상상하거나 감행할 수 없게 돼버렸다. 우리는 신용협동조합과 대안 금융운동의 소중한 역사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시도가 초기의 훌륭한 문제의식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기존의 은행과 닮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도 직시하고 있다. 돈이 없을 때는 돈이 돈을 버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만, 돈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율배반에 빠지고 만 것이다. 기존의 은행과 똑같은 욕망을 가진 사람들, 더 높은 이율과 수익을 바라는 자산가, 더 낮은 이율과 높은 레버리지를 바라는 대출자, 안정성과 수익성과 최대이율을 추구하는 은행가, 이들이 만들어내는 은행에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

자본의 힘을 키우고, 자본 수익을 늘려서 돈으로부터 해방될 것인가? 아니면 자본의 힘을 줄이고, 자본 수익을 나눠서 돈으로부터 해방될 것인가? 우리의 삶의 방식과 지향이 갈라지는 중요한 차이는 여기에 있다. 결국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자본으로 살 것인가? 꼬뮌으로 살 것인가?

6 꼬뮌뱅크

꼬뮌뱅크라는 개념은 앞서의 논의를 통해 우리가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갔으면 하는 반자본 금융주체들의 반자본은행은 어떤 형태일 수 있을지 개념적으로 생각해 본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실천들은 각각 나름의 역할과 의미가 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결국 은행이라는 구심점이 없어서 금융을 통한 잠재력을 충분히 사용하고 있지 못한 것 아닌가? 각각



의 다양한 공동체와 단체와 조합 조직이 연대하고 통합하는데 부족한 것은 아닌가? 반자본이라는 방향성이 애매했던 것은 아닌가? 화폐를 접하는 계기에서 반자본 주체의 형성이라는 전략이 부족했던 것은 아닐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지금 당신들에게 우리의 은행을 만드는 혁명을 하자고 제안하고자 한다. 자본의 은행을 거부하고, 자본의 은행에 대항할 수 있는 우리의 은행, 교문뱅크를 지금 여기서 만들자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투철한 반자본주의자고, 강건한 노동운동가고 현명한 소비자조합원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자본의 은행시스템의 예금자이고 대출자에 불과하다. 우리가 가진 돈이 얼마되지 않고, 또 그것이 자본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그것이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한 그 돈은 착취와 파괴의 현장으로 투입된다. 우리가 자본가와 투쟁해서 쟁취한 임금, 자본가의 유혹을 이기고 허리띠를 졸라 모은 저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한 그것은 자본가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돈이 소중한 만큼, 우리는 우리의 돈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로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우리는 심지어 자본의 은행시스템이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직접 교문뱅크를 만들지 않는 한 자본주의 은행시스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없다. 교문뱅크는 혁명 이후에나 가능한 것 아니냐고? 은행시스템이 건재하는 한 혁명은 없다.

6.1 교문뱅크의 역할

- 반자본주의자와 교문들의 재정적 연대의 플랫폼 역할.
- 자본 및 부채에 대한 재무 정보의 수집.
- 교문들의 자본 수요 조사.
- 공동체간 재정적 연대
- 공동의 목적과 계획에 대한 논의
- 자산의 배분 운영방식 논의
- 잉여금 처분 원칙 논의
- 교문과 교문 구성원의 은행 전환 유도
- 반자본 주체에 대한 지지
- 각종 금융 서비스의 대체
- 민주주의적 운영
- 토지, 공간 등의 공유지 확보 확장
- 교문화폐 발행
- 이행을 위한 진지.



6.2 꼬문

우리는 가난하다. 하지만 거대자본에 맞서 미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받는 노동 수입과 원하지도 않는 거짓 욕망을 전방위적으로 강요당하는 우리의 소비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겨우 저축한 돈을 투자로 날리고, 보험에 쏟아붓고, 대출이자로 빼앗기는 우리가 어떻게 가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조건에 대해 분노하고 투쟁하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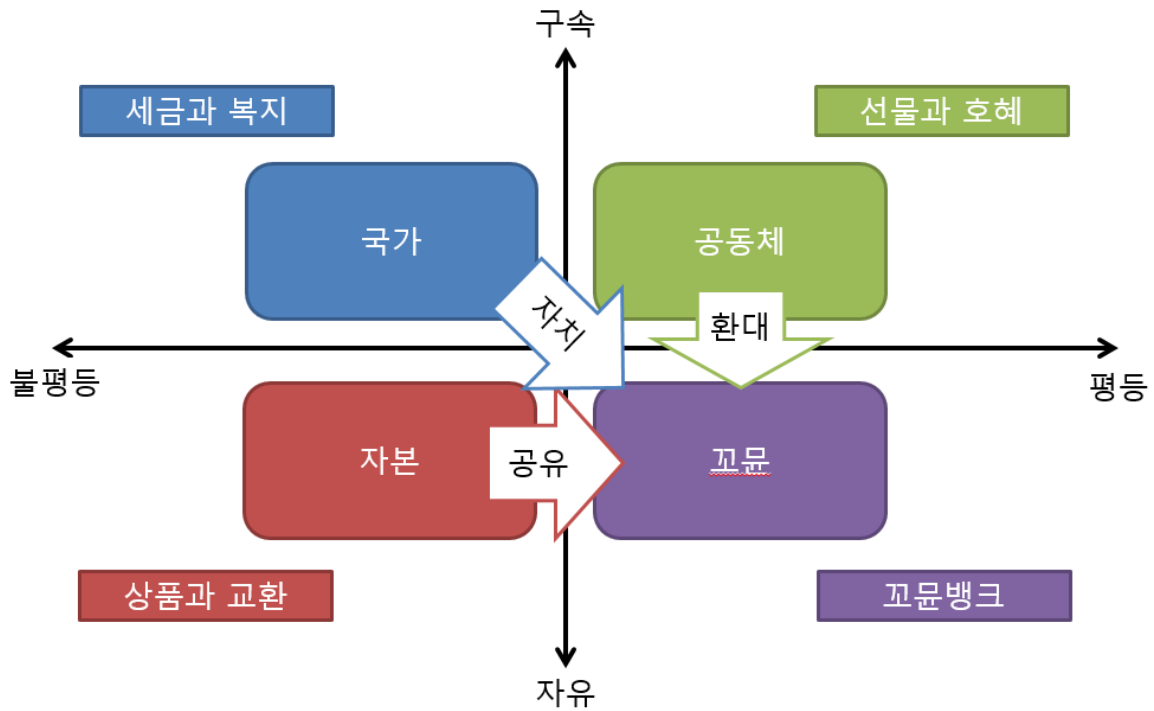
우리는 가난하다. 이 척박한 환경에서 공동체와 공유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빚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빼앗기는 사람들, 투쟁하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몰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와중에도 먼저 협력하고 먼저 내어주는 착한 사람들이 어떻게 가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수익을 바라지 않고 공공의 목적을 위해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겠는가? 받을 기대 없이 주고, 주는 티 내지 않고 주고, 받은 것보다 더 크게 나눠주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어찌 홀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가난하기로 한다. 가난한 우리들이 모여서 함께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이런 우리가 갈가리 찢어져 홀로 하나 둘 그들이 되어가지 않고, 언제까지나 우리로서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은행은 어떠한 은행일 수 있을까? 반대로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은행은 어떤 은행이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그들의 은행이 아닌 우리의 은행을 만들 것인가?

만약 그런 은행이 있다면 그것은 자본에 반하는 반자본은행, 서로 돕고 함께 움직이는 공동체들의 공동체(共動體), 꼬문을 만들어내는 꼬문은행(Commune Bank),



6.3 꼬문의 원칙



6.3.1 공유 : 반자본

- 자본주의 반대
- 자본수익에 대한 반대 : 이자와 레버리지의 거부
- 개인적 소유는 인정하되 공동으로 점유한다.

6.3.2 자치 : 반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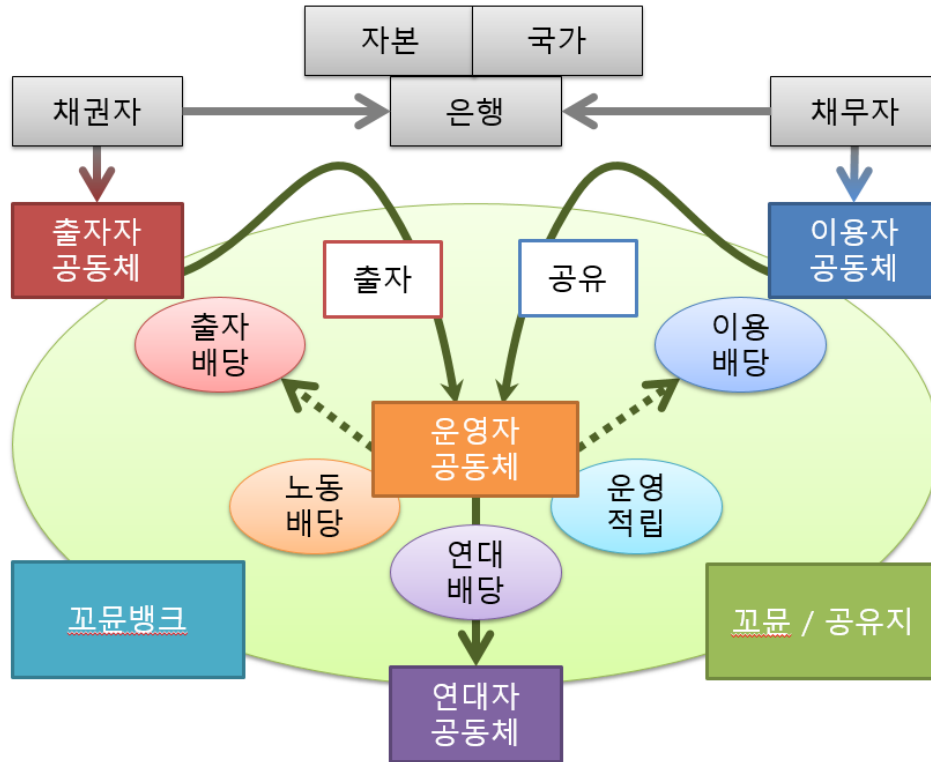
- 국가주의, 관료주의, 권위주의, 시혜주의 반대
- 자치적, 독립적,
- 자발성, 책임성

6.3.3 환대 : 반고립

- 가족주의, 공동체주의의 극복
- 고립성, 폐쇄성의 극복
- 외부성, 확장성, 연대성, 보편성,



6.4 주체의 전환



6.4.1 출자자

우리는 돈이 돈을 벌고,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 금융자본의 질서에 반대하며 자본을 위한 저축을 거부한다.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돈이 은행과 투자를 통해 금융자본이 되어 행하는 착취와 폭력으로부터 해방되길 바란다. 그래서 우리는 자본이 지배하는 은행에 종속된 예금자나 투자자가 아니라 빈고의 출자자가 되고자 한다. 우리는 노동과 투쟁을 통해 얻은 수입과 현명하고 소박한 지출 계획을 바탕으로, 출자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지키고자 노력한다.

6.4.2 이용자

우리는 공유자본을 요긴하게 이용해서 공동체 공간과 공유지를 만들고 가꾸면서 공동체 구성원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이를 통해서 더 많은 공유지와 더 많은 공동체 구성원이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란다. 여러 사람이 모은 공유자본을 이용하고 공동체를 꾸리는 일은 수많은 노력과 다짐, 경험과 지혜를 필요로 하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하면서 점점 더 잘 함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채무자나 사업가가 아니라 빈고의 공유자본을 능숙하게 활용하는 이용자가 되고자 한다. 우리는 공유자본의 힘으로 줄어든 월세, 절약한 이자 등의 이용수입은 자신과 모두를 위해 공유한다.

6.4.3 연대자

우리가 출자를 통해 자본을 공유자본으로 만들고, 공유자본을 잘 이용한다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

지 않은 잉여금이 발생한다. 우리가 빼앗겼던 돈을 다시 빼앗아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멈출 수 없다. 우리는 만인이 빼앗기는 질서에 반대하며, 우리 외부에 여전히 빼앗기는 세상 만인들이 있다는 것을 안다. 우리가 이들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어느새 빼앗는 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셈이다. 우리는 빼앗기던 돈을 다시 빼앗아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원래의 주인인 세상 만인과 모든 생명과 공유할 것이다. 우리는 외부의 또 다른 우리와 연대하는 사람이자, 연대의 상대자이기도 한 연대자가 되고자 한다. 우리는 만인을 수탈하는 자본의 질서에 저항하는 사람들과 기쁘게 함께하며 서로 닮아갈 것이다.

6.4.4 운영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즐겁게 함께할 것이다. 돈의 다른 흐름, 사람들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 더욱더 많은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즐거운 일이다. 적절한 활동비가 적절히 분배되는 것은 노동의 비용이 아니라 노동이 재밌는 일이 되기를 바라는 목적 중에 하나다. 우리는 그렇게 다른 은행을, 다른 질서를 만들어 내는 운영활동가가 되고자 한다. 우리는 고된 일을 재밌게 만들기 위해 협력하고, 재밌는 일을 개발하기 위해 궁리하고, 노동시간을 줄여 나감으로써 일하는 우리의 삶이 재밌어 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6.4.5 주체간 융합

각각의 주체는 서로 역할을 바꾸기도 하고 동시에 여러 주체가 되기도 하며 하나로 합쳐지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동등한 사람으로서 함께 살아갈 것이다. 우리는 꼬문뱅크의 출자자=이용자=연대자=운영자로서 살아갈 것이다. 우리의 구호는 다음의 두 문장으로 정리된다.

능력에 따라 출자하고, 필요에 따라 이용한다! 기쁘게 연대하고, 재밌게 운영한다!

6.5 꼬문뱅크를 위한 자료

다중의 제한[구성]적 원리들과 분리 불가능한 권리들을 실현하려면 은행들이 공통재를 위해 공동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그리고 금융은 민주적 계획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

은행들은 언제나 (심지어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체제에서도) 사회적 계획화의 기관들이다. 자유주의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체제에서 이 계획화는 부를 축적하고 사적으로 유통하는 수단을 보장하고 확대하는 것을 지향한다. 이것이 오늘날 은행을 독립적이라고 부르는 것의 주요한 의미다. 다시 말해 은행이 시민들의 민주적 통제로부터 독립적인 것이다. 오늘날 더 중요하고 더 기본적인 것은 투자를 시민들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적 지배의 통제 아래로 가져가는 것이다.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는 시민들에게서 선택의 자유를 박탈했고, 사회적 재생산에 잔인하고 강압적인 규범을 부과했다. 공적인 것, 즉 사회적인 것을 초월하는 권위는 언제나, 종종 비합리적이고 맹목적이고 숨막히는, 관료적 방식으로 행동한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주의 정권들 아래에서 사회적 계획화의 관료주의적 도구로 기능했던 은행의 역할을 거부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윤과 지대의 확장을 목적으로 하는 은행들의 자본주의적 모델도 거부한다. 두 모델 모두 공통적인 것에 반해서 행동하기 때문이다. 사적 축적의 수단이거나 공적 계획화의 수단으로서의 은행에 대한 거부, 공통적인 것의 축적과 계



획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모델을 생각할 길을 열어준다. 우리는 (은행이) 능력들을 결합하고 지식을 통합하는 이러한 기능이 사회적 생산과 재생산의 민주적 계획화에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 가를 상상해 볼 필요가 있다. 공통적인 것을 위해서는 은행이 사라져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모든 범위의 생산적인 사회관계들을 등록하고, 양성하고, 후원하는 은행의 기능들이 증가되고 또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방법을 통해 자유와 공통적인 것에의 접근(권)이라는 제한[구성]적 원리들이, 은행을 다른 민주적 기관들의 버팀목으로 만들면서, 은행제도를 관통할 수 있다. 오늘의 투쟁들이, 은행과 금융산업들이 사회적 불안정을 가중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악화시키며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을 포함하는, 그 실천들의 부당함을 탄핵하기 위해, 그것들을 공격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내일, 그 투쟁들은, 은행들과 금융수단들이 민주적 참여를 통한 사회적 부의 생산, 재생산, 분배를 계획하는 데 필요한 기능들을 수행하도록 그것들을 구부리면서, 그것들을 변형시킬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 안토니오 네그리 + 마이클 하트, <빛을 전복하라>, <<선언>>

앞에서 우리는 빛 없는 사회를 위한 지역적 차원의 이자 없는 은행, 가상 화폐의 통용 가능성을 보았다. 지역 차원 뿐 아니라 국민 경제 차원에서도 빛 없는 사회의 핵심은 여전히 이자다. 국민 경제 수준에서 당장 이자를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이자 발생을 용인하되, 이것을 개인 소유가 아닌 사회적 소유로 바꾸는 즉, 이자의 사회화를 이룰 수 있다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자의 사회화는 어떤 과정을 거쳐 실현될 수 있는가?

첫째, 이자의 사회화를 위한 출발은 은행의 국유화/사회화이다. 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면서 은행 국유화를 유도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은행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 금융과 신용 제도는 국가의 긴밀한 감독과 규제 속에서 발전했고 금융이 대형화할 수록 국가와 더 융합되었다. 둘째, 중앙은행의 독립이다. 그런데 이 독립은 국민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닌 권력과 채권 지배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 중앙은행을 금융 전문가나 국제 금융 카르텔의 영향력에서 거꾸로 독립시켜 국가의 민주적 통제 아래 놓고 통화량 조절 및 시중은행의 규율을 다시세워야 한다.

셋째, 이자 수입을 환수한다. 이것은 은행의 이자 수입은 물론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익도 이자로 보고 이를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 수입의 80% 이상이 이자 수입이다. 이러한 수입은 대출을 통해 이뤄졌으므로 예금이자로 지급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자수입은 모두 국가에 귀속시킨다. 또한 자본으로서의 화폐 공급은 이자 수입에 대한 기대 및 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이뤄지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과 지속 가능성, 공동체 기여율 등을 판단하는 민주적 심사를 통해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예금과 대출 이자 없이 서비스 수수료로 운영되는 공공은행을 보편화한다. 이 은행은 발권은행인 중앙은행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공급받고, 기업 대출 등 특수 목적 은행은 목적에 맞는 사업을 진행한다. 주택과 가사 노동의 사회화 정책과 무상의료/교육 등 사회정책이 결합하면 개인 대출 규모도 대폭 줄어 빛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구조가 확보된다. 이처럼 이자가 없어지고 빛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마련되면, 가계가 쓰고 남은 돈을 은행에 맡겨두고 필요한 사람이 대출을 받아가는 선순환구조가 확보된다.

이 과정에서 화폐의 성격도 변화할 것이다. 유통 수단으로서 화폐는 더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겠지만, 지급과 부의 축적 수단으로서 화폐의 역할은 약화할 수도 있다.

- 송명관 + 홍석만, <부채전쟁>



금융부문은 종종 "자본주의의 화려한 만개"라고 표현되곤 한다. 그러나 이 산업이 반드시 자본주의적이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 만일 우리가 경제적 차이를 이론화하려는 마음으로 그 생산관계와 수입원, 대출과 투자의 최종목적지 등을 검토해본다면, 이 금융산업에서 무엇이 필연적으로 자본주의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생산관계에서의 이러한 차이들을 고려한다면, 금융산업을 자본주의적이라고 부를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분명치 않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호명방식이 다원성과 차이를 부각시키기보다 모호하게 만들 뿐이라는 점이다. 나아가, 금융산업에서 생겨나는 수익 역시 완전히 이종적인 원천들로부터 말미암는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산업이 수행하는 투자와 대출활동 역시 자본주의 재생산이라는 지상명령에 의해 완전히 규율될 수 없는 일종의 '제멋대로인 생성의 힘'으로 이해될 수 있다.

어쩌면 신용의 확산과 금융시장의 탈규제 덕분에 자본주의적 계급관계뿐만 아니라 비자본주의적 계급관계들 또한 더 자라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소비자신용의 엄청난 신장(극대화된 한도를 자랑하는 신용카드 금융, 가계담보 대출, 기타 '소비자'에게 거의 강제 부과되고 있는 다른 여러 수단들)은 소비문화를 조장하고 그에 따른 개인 채무의 증가를 낳는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자영업과 가내 공업의 성장을 고려할 때 - 이 중 일부는 자본주의적 기업의 규모축소와 군살빼기의 결과로 볼 수 있다 - 소비자신용처럼 보이는 것의 상당수가 실은 생산자신용이다(이기도 하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즉 소비자신용 대출금은 생산수단(컴퓨터를 비롯한 기타 사무비품을 포함)과 자영업자의 생산과정에 필요한 기타 투입물을 구매하는 데 사용된다. 역사적으로 지방과 지역 은행 같은 전통적인 금융기관에서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받기란 너무도 어려웠다. 하지만 새로운 국제 신용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소비자신용 대출을 즉각적이고 손쉬워졌다. 이러한 변화는 곧 소규모 사업의 증가에 기여했는데, 소규모 사업장은 개인이나 공동의 잉여 전유와 같은 비자본주의적 계급과정(물론 소규모 자본주의 기업도 신용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이 이루어지는 장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신체로 진입하는 '통로'가 금융 부문에서 열린 것이다. 이 통로는 자본의 출입을 허용하지만 동시에 비자본주의의 투입도 가능해졌다.

- 김슨-그레엄, <그따위 자본주의는 벌써 끝났다> 중

벤처 코뮤니즘은 새로운 종류의 사회에 대한 제안이 아니라, 사회적 투쟁에 참여하기 위한 조직 형태로 이해되어야 한다. 벤처 코윈은 노동조합, 정당, NGO 그리고 다른 잠재적인 계급투쟁 수단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즉 권력의 경제적 균형을 노동계급 이익의 대표자들 쪽으로 기울이기 위한 것이다. 벤처 코뮤니즘이 없다면, 이러한 다른 조직화된 형식들은 항상 훨씬 더 많은 부를 지닌 적대세력과 대항하여 작동하도록 강제되고, 따라서 끝없는 흡수, 실패, 후퇴를 겪을 수 밖에 없다. 유일한 길은 우리의 노동을 비생산자들이 소유한 자산에 투여하는 것을 중단하고 대신 생산적 자산의 공통재를 형성하는 것이다.

벤처 코뮤니즘은 우리 자신의 생산 과정을 통제하고, 우리 노동의 생산물 전체를 보유하며, 우리 자신의 자본을 형성하고, 우리가 부를 집합적으로 충분히 축적해서, 착취를 옹호하는 이들보다 훨씬 더 큰 사회적 영향력을 획득하게 될 때까지 우리 자신의 자본을 확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경제적 균형은 벤처 코뮤니즘의 평범한 목적보다 훨씬 큰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회에서는 카피레프트 혹은 벤처 코뮤니즘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계급 없는 사회, 즉 평등한 사회의 건설이라는 역사적 소명의 실현을 위해 노동자들을 단결시킬 수 있는 실천수단일 뿐이다.

전 세계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잃을 것은 사슬뿐이요, 얻을 것은 세계다.

- 드미트리 클라이너, <텔레코뮤니스트 선언 - 정보시대 공유지 구축을 위한 제안>



7 공동체은행 빈고의 사례

7.1 빈고의 반자본 주체

빈고는 이론에서 시작하지 않았다. 빈집이라는 독특한 공간과 독특한 감각을 가진 주체들이 있었다. 분명 자본주의와는 거리가 있는 주체들이다. 반자본 금융주체.

- A : 공동 주거 공간에 자기가 가진 대부분의 돈을 출자했지만 돈이 돈을 벌 수는 없다며 다른 사람과 똑같이 비용을 분담하고 보상을 거부하는 주체
- B : 출자와 차입으로 인해 월세가 줄어들었지만 내가 혜택을 받을 이유도 없고, 받는 게 부담스러우니 한사코 시세대로 비용을 분담하고 출자도 하겠다는 주체
- C : 추가적인 출자와 월세와 이자로 빠져나가던 돈을 절약해서 생긴 잉여금으로 만들어진 돈을 소비해버리지 말고 잘 모아서 새로운 공간을 더 얻는데 사용하자고 주장하는 주체
- D : 남는 돈은 삶을 위협받는 사람들, 투쟁하는 사람들, 빼앗기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체
- E : 뜻밖에 1억 정도의 상속을 받고 어리둥절한 채 자신의 돈이 아닌 이 자본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반자본주의자의 실천인지를 고민하는 주체
- F :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것이 올바르고 재미있는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주체
- G : 돈은 친구들과 노는데 아낌없이 써버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주체.
- H : 임금노동에 반대하고, 적게 노동하고 적게 벌면서 자신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필요한 것을 직접 생산하거나 재활용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하는 주체
- I : 어쩔수 없이 은행에 빚을 지고 갚고 있지만 은행에 이자를 주는 것이 너무 싫어서, 친구한테 빌릴 수 있다면 친구한테 이자를 주고 싶다고 생각하는 주체
- J : 돈 계산 따위는 신경조차 쓰지 않는 주체
- K : 이익과는 무관하게 돈 계산을 엄밀히 하는데 쾌락을 느끼는 주체

출자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주체. 출자금의 혜택에 무임승차하는 주체. 공유지를 소비할 뿐 만들고 운영과 확대에 무관심한 주체. 자본 수익의 출처와 수탈받는 이웃에 대해 무관심한 주체. 상속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주체. 과다한 소비, 짜짜한 소비, 과다한 노동, 개인적 저축, 개인적 대출. 등등의 자본주의적 금융 주체들과 비교해 보라.

물론 사람의 주체성은 복합적이며 시간과 환경에 따라 변화하기 마련이다. 어느 장소에 누구와 함께 있는가에 따라 생각이 바뀌기 마련이다. 서로간의 모순되는 생각을 동시에 갖고 우왕좌왕하기도 한다.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일관되게 이와 같은 주체성을 갖는다면 살기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와중에서도 서로를 즐겁게 하는 반자본적 금융주체는 이따금씩 그렇지만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또 서로를 전염시키기도 한다.

우리가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주체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주체를 환영하고, 지지하고, 재생산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빈고는 이런 주체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은행이다. 사후적으로 정리된 것이지만 우리는 이러한 주체를 출자자=이용자=연대자=운영자라는 주체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7.2 빈고에서 반자본 운영

7.2.1 자본수익에 대한 반대

- 출자자는 자본수익을 기대하지 않는다.
- 이용자도 자본수익을 기대하지 않는다 : 이용수입을 계산하고 자율적으로 분배한다.
- 운영자도 자본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
- 자본수익이 원래 없었어야 할 것. 없어도 좋다.

7.2.2 자본수익의 공동분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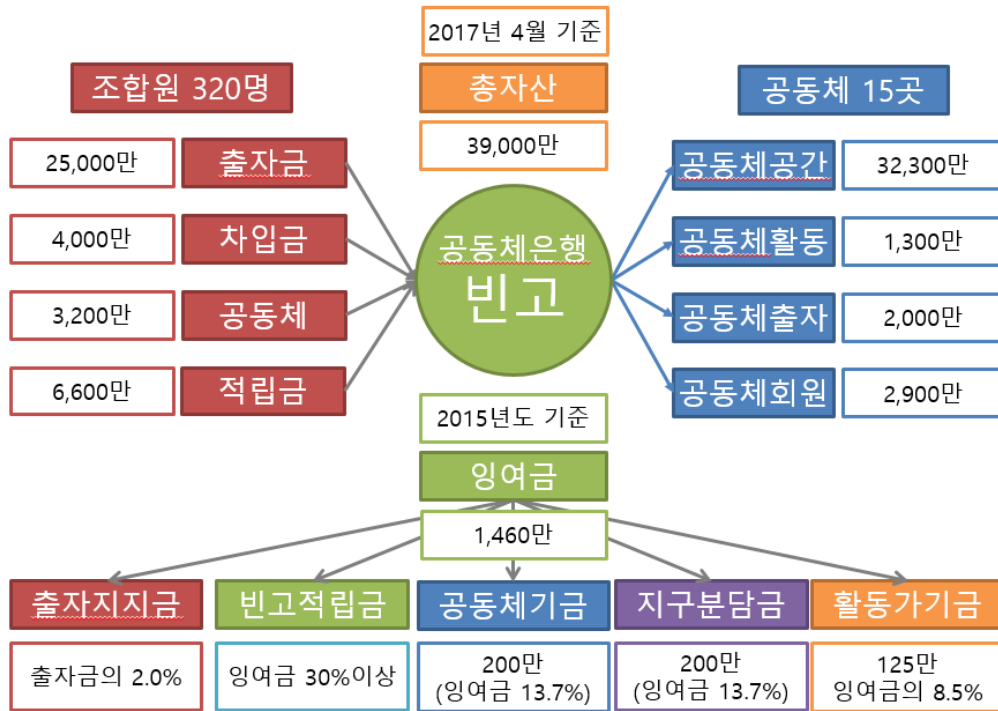
- 자본수익을 잉여금으로 모은 후 다시 출자자, 이용자, 운영자, 연대자에게 각각 배당한다.
- 출자자배당은 시중예금 이율 이하로 제한되며, 출자자에게 적립되고, 탈퇴할 때 지급된다.
- 이용자배당은 공동체공동의 기금으로 적립되며,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사용한다.
- 연대자배당은 조합원이 연대활동을 할 때 사용한다.
- 운영자배당은 상임활동가에 노동에 대해 배당된다.
- 내부적립금은 손실에 대비한다.

7.2.3 공동의 계획

- 각 주체는 스스로 세운 계획에 따라 활동한다. 출자활동, 이용활동, 운영활동, 연대활동.
- 이용은 3인 이상의 공동체가 공간, 활동, 회원의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다.
- 각 공동체의 출자, 이용 계획을 모아서 전체 빈고의 자금 운영계획을 세운다.



7.3 빈고 현황



7.4 빈고의 특징

7.4.1 빈고는 얼마나 작은가

- 2010년 설립. 현재 8기.
- 초기 조합원 : 13명
- 현재 조합원 : 320명
- 출자금 : 2.5억 (조합원 1인당 평균 60만원)
- 총자산 : 4.0억 (서울 아파트 1가구 전세가 정도)
- 연간 수입 : 2000만원 (1인 노동자 연봉 정도)
- 연간 잉여 : 1400만원
- 활동비 : 30만원*2명
- 비법적 단체
- CMS 출금 없음

7.4.2 빈고는 얼마나 큰가

- 공동체공간 : 14 곳 / 누적 약 40건
- 공동체공간 주민 : 50 여명 / 누적 약 500 여명
- 설립 이후 7년 연속 흑자 (출자배당률 2% ~ 3.5%)



- 현재 적립금 : 6600만(빈고적립금 3000, 출자지지금 1800 등)
- 누적 출자액 / 반환액 : 81,800만 / 57,000만
- 누적 이용액 / 반환액 : 118,000만 / 80,000만
- 외부 후원금, 지원금 수입 / 지출 : 0원 / 900만

7.5 빈고의 활동

7.5.1 공동체들의 공동체



7.5.2 공동체 금융활동가들의 운영회의

7.5.3 여러 실험들의 기반

7.5.3.1 대안화폐 - 스마트레츠

7.5.3.2 토지공동소유 - 빈땅

7.5.3.3 협동조합보험 - 건강보험계



7.6 빈고의 사례

7.6.1 생각보다 안 망한다.

7.6.2 생각보다 쓸 만하다.

7.6.3 규모가 더 커지면 어떨까?

8 만국의 반자본주의자여, 출자하라.

빈고가 대안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많이 부족하고, 아직도 만들어가는 중이다. 빈고의 경험은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다. 대부분이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

빈고를 꼬뮌뱅크로 만들어가도 좋고, 별도의 꼬뮌뱅크를 만들어도 좋다. 반자본주의자들이라면 더 잘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어쨌든 우리 같이 하자.



9 공동체은행 빈고 선언문

우리는 돈이 있을 때도 은행으로 가고, 없을 때도 은행으로 간다. 돈이 남는 사람은 은행에 예금을 하고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은행으로부터 필요한 돈을 대출받을 수도 있다. 은행은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해서, 양쪽 모두를 만족 시키는 편리하고 합리적인 서비스다. 은행은 어떤 위기에든 지켜져야 하는 사회경제 시스템의 흔들림 없는 기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우리는 정반대가 진실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미 짜여진 은행 시스템 속에서 선택의 여지 없이 종속되어 있다. 우리는 은행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은행 시스템 내부의 닫힌 화폐 흐름이 잠시 우리의 계좌를 거쳐 갈 뿐이다. 우리가 남는 돈을 적절히 보관하고 활용할 다른 방법이 있는가? 우리가 필요한 돈을 빌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가? 우리의 돈을 어떻게 이용하고 어디에 투자하는지 결정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가? 누가 우리의 이자율과 투자처와 신용등급과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가? 우리는 도대체 언제 이 시스템 속에서 살아갈 것을 동의했던 말인가? 다른 대안은 정말 불가능한 건가?

은행이 안정적이라고? 그건 일차적으로는 국가가 안정성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가 그럴 수 있는 것은 국가가 국민 즉 우리로부터 세금을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수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이 수익성이 높다고? 그것은 일차적으로는 은행이 수익성 높은 거대자본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대자본의 수익성이 높은 것은 거대자본이 노동자와 소비자 즉 우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착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은행이 안정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벌고 있다면, 결국 그것은 모두의 주머니를 텅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자본주의 은행시스템은 우리의 욕망과 삶의 양식마저도 바꾸어 놓기 시작했다. 우리는 어느새 저들의 욕망과 저들의 규칙을 따르게 되었다. 무심코 은행에서 권유한 펀드 상품에 가입하면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돈이 안정성과 수익성을 갖고 저절로 불어나길 바라게 되었다. 돈이 어떻게 쓰이고, 누구를 위해 쓰이건 간에 중요한 것은 나에게 돌아오는 이자 또는 투자 수익률뿐이다. 은행의 낮은 이율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 돈을 빌려 부동산을 매입하고, 투자를 하고, 사업을 벌이면서 레버리지라는 이름의 더 높은 수익률을 얻고자 한다. 그렇게 우리는 여전히 수탈당하고 착취당하는 노동자와 소비자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예금자, 채권자, 투자자, 채무자, 자산가, 사업가가 되어 간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잃어버리고 그들 중의 하나로, 은행시스템의 지지자 또는 공범자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변해버린 우리의 욕망과 신체는 어떠한 다른 삶도 상상하거나 감행할 수 없게 돼버렸다. 우리는 신용협동조합과 대안 금융운동의 소중한 역사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시도가 초기의 훌륭한 문제의식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기존의 은행과 닮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도 직시하고 있다. 돈이 없을 때는 돈이 돈을 버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만, 돈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율배반에 빠지고 만 것이다. 기존의 은행과 똑같은 욕망을

가진 사람들, 더 높은 이율과 수익을 바라는 자산가, 더 낮은 이율과 높은 레버리지를 바라는 대출자, 안정성과 수익성과 최대이윤을 추구하는 은행가, 이들이 만들어내는 은행에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

돈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개입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지배하게 되면 될수록 이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진다. 노동자로서 정당하게 수입을 얻고, 소비자로서 올바르게 지출을 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현대 금융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개인의 수입과 지출 외에 자산과 부채가 갖는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한 사람의 부는 노동시장에 나가기도 전에 자산과 부채의 차이로 대부분이 결정된다. 집을 사는 것은 더는 소비의 문제가 아니라, 자산을 상속받는 문제, 대출이라는 리스크를 안고 레버리지를 노리는 투자와 자산운용 전략의 문제다. 우리는 오늘 하루 소비를 위해 노동하는 것만큼이나, 과거의 부채 때문에 노동하고, 미래의 자산을 위해 노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노동자로서 단결하고, 소비자로서 연합하는 만큼, 금융의 영역에서도 단결하고 연합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경험과 이론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 노동자는 어떻게 저축해야 하나? 실업자는 어떻게 생활해야 하나? 소비자는 금융상품을 어떻게 해야 하나? 노동자는 어디에 투자해야 하나? 소비자는 어떻게 집을 구해야 하는가? 우리는 노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우리는 어떻게 미래의 위험에 대비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그들과 다르게 돈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노동자와 소비자로서 그들과 투쟁해서 돈에 여유가 생겼을 때, 우리가 그들과 같은 부자가 되고 말 것인가?

우리는 가난하다. 하지만 거대자본에 맞서 미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받는 노동 수입과 원하지도 않는 거짓 욕망을 전방위적으로 강요당하는 우리의 소비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겨우 저축한 돈을 투자로 날리고, 보험에 쏟아붓고, 대출이자로 빼앗기는 우리가 어떻게 가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조건에 대해 분노하고 투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가난하다. 이 척박한 환경에서 공동체와 공유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빛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빼앗기는 사람들, 투쟁하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몰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와중에도 먼저 협력하고 먼저 내어주는 착한 사람들이 어떻게 가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수익을 바라지 않고 공공의 목적을 위해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겠는가? 받을 기대 없이 주고, 주는 티 내지 않고 주고, 받은 것보다 더 크게 나눠주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어찌 홀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가난하기로 한다. 가난한 우리들이 모여서 함께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이런 우리가 갈가리 찢어져 홀로 하나둘 그들이 되어가지 않고, 언제까지나 우리로서 함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은행은 어떠한 은행일 수 있을까? 반대로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은행은 어떤 은행이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그들의 은행이 아닌 우리의 은행을,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을 만들 것인가?

만약 그런 은행이 있다면 그것은 자본에 반하는 반자본은행, 서로 돕고 함께 움직이는 공동체들의 공동체(共動體), 꼬문을 만들어내는 꼬문은행(Commune Bank), 은행(銀行)이 아닌 은행(恩行), 가난해서 행복한 빈민들의 금고(貧庫), 모든 것을 나눠주고, 모든 것을 받아 안을 수 있는 비어 있는 금고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의 공동체은행 빈고는 그런 은행이 되고자 한다. 그리고 빈고를 만들어가는 우리는 공동체은행 빈고의 조합원으로서 출자자=이용자=연대자=운영자로서 함께 살아가고자 한다.

출자자 : 우리는 돈이 돈을 벌고,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 금융자본의 질서에 반대하며 자본을 위한 저축을 거부한다.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돈이 은행과 투자를 통해 금융자본이 되어 행하는 착취와 폭력으로부터 해방되길 바란다. 그래서 우리는 자본이 지배하는 은행에 종속된 예금자나 투자자가 아니라 빈고의 출자자가 되고자 한다. 우리는 노동과 투쟁을 통해 얻은 수입과 현명하고 소박한 지출 계획을 바탕으로, 출자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지키고자 노력한다.

이용자 : 우리는 빈고의 공유자본을 요긴하게 이용해서 공동체 공간과 공유지를 만들고 가꾸면서 공동체 구성원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이를 통해서 더 많은 공유지와 더 많은 공동체 구성원이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란다. 여러 사람이 모은 공유자본을 이용하고 공동체를 꾸리는 일은 수많은 노력과 다짐, 경험과 지혜를 필요로 하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하면서 점점 더 잘 함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채무자나 사업가가 아니라 빈고의 공유자본을 능숙하게 활용하는 이용자가 되고자 한다. 우리는 공유자본의 힘으로 줄어든 월세, 절약한 이자 등의 이용수입은 자신과 모두를 위해 공유한다.

연대자 : 우리가 출자를 통해 자본을 공유자본으로 만들고, 공유자본을 잘 이용한다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잉여금이 발생한다. 우리가 빼앗겼던 돈을 다시 빼앗아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멈출 수 없다. 우리는 만인이 빼앗기는 질서에 반대하며, 우리 외부에 여전히 빼앗기는 세상 만인들이 있다는 것을 안다. 우리가 이들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어느새 빼앗는 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셈이다. 우리는 빼앗기던 돈을 다시 빼앗아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원래의 주인인 세상 만인과 모든 생명과 공유할 것이다. 우리는 외부의 또 다른 우리와 연대하는 사람이자, 연대의 상대자이기도 한 연대자가 되고자 한다. 우리는 만인을 수탈하는 자본의 질서에 저항하는 사람들과 기쁘게 함께하며 서로 닦아갈 것이다.

운영자 :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즐겁게 함께할 것이다. 돈의 다른 흐름, 사람들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 더욱더 많은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즐거운 일이다. 적절한 활동비가 적절히 분배되는 것은 빈고의 비용이 아니라 노동이 재밌는 일이 되기를 바라는 목적 중에 하나다. 우리는 그렇게 다른 은행을, 다른 질서를 만들어 내는 운영활동가가 되고자 한다. 우리는 고된 일을 재밌게 만들기 위해 협력하고, 재밌는 일을 개발하기 위해 궁리하고, 노동시간을 줄여 나감으로써 일하는 우리의 삶이 재밌어 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공동체은행 빈고의 출자자=이용자=연대자=운영자로서 살아갈 것이다. 우리의 구호는 다음의 두 문장으로 정리된다.



능력에 따라 출자하고, 필요에 따라 이용한다!
기쁘게 연대하고, 재밌게 운영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의 삶을 닮은 세상이 될 것이다.
조합원들의 노동의 결과가 소비되거나 수탈되지 않고 모이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가진 돈이 그들만을 위해 쓰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쓰이게 될 것이다.
빼앗기던 월세와 이자와 수익금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누구도 집을 소유하지 않지만, 모두가 집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것이다.
아무도 가지려 하지 않지만, 그래서 모두가 가지게 될 것이다.
한사코 사양하지만 더욱 풍요롭고 요긴하게 돌아올 것이다.
풍요로운 부는 내부에 머물지 않고 외부의 연대자에게 넘쳐흐를 것이다.
우리 외부의 연대자는 곧 우리가 될 것이다.
공유지는 넓어지고,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만큼 다시 공유지가 넓어질 것이다.
모두가 가난하지만 누구도 빼앗기지 않고, 아무도 쫓겨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연금과 보험을 하지 않아도,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자본수익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수익이 줄어드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자본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이 위기를 겪어도 아무도 꿈쩍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자본에 의지하지 않는 생산과 소비를 만들어갈 것이다.
돈은 무소불위의 신이 아닌 단순한 도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전혀 다른 돈을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미래를 우리는 기다리지 않는다.
우리는 미래를 지금 여기서 살아간다.
우리는 미래에 함께하기 위해 지금 이미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당신이 곧 또 한 명의 우리가 될 것이다.
당신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는 미래다.
당신, 또 다른 우리여. 함께 가자!
은행에서 빈고로! 자본에서 꼬뮌으로!

우리가 잃은 것은 오직 자본에 대한 도착이라는 쇠사슬이요, 얻을 것은 전 세계이다.
만국의 빈민들이여 단결하라

2016.03.05 공동체은행 빈고 6차 총회 조합원 일동

